

# 골백이 堂山祭와 民間信仰

## —尙州地域의 龜石信仰을 中心하여—

金基卓

### 内 容

- |                   |                     |
|-------------------|---------------------|
| I. 序 言            | III. 神木 등이 및 龜石緣起說話 |
| II. 골백이 堂山祭의 實際   | IV. 龜石信仰의 意義        |
| 1. 外西面 連峰里의 거북堂山祭 | V. 結 言              |
| 2. 洛東面 新上里의 거북堂山祭 |                     |

### I. 序 言

우리 나라 民俗信仰의 하나인 部落祭는 自然部落의 部落民들이 自己本  
마을의 守護와 疾病等의 災害를 막고, 退厄 招福을 神明에 祈願하여 鄉土  
의 年中行事로 祭祀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上代로부터 始源한 가  
장 오래된 部落集團信仰이다. 部落祭의 祭名 역시 現今까지 그 鄉土의 自  
然的 條件과 歷史的 傳說에 따라 여러가지 雜多한 異名을 表出하고 있으  
나 그 信仰對象과 信仰內容에 따라 山神堂 國師堂 城隍堂 等의 諸神堂들은  
모두 同一神인 部落守護神으로 모시는 民俗信仰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祭堂의 名稱이 多樣化에도 불구하고 共通의 信仰性을 가진다는 것은 上代  
우리 民族의 遺俗의 神堂의 祭儀를 通하여 民俗信仰인 土俗宗教로서 이  
땅에 定着하여 超自然에 對한 宗教的 特有한 集團意識을 營爲하였다고 보  
는데 特質이 있다. 元來 部落守護神은 神樹와 積石의 複合의 基本形態로

※ 本稿는 『地域傳承 文化研究』의 調査報告 가운데 民俗關係 一部을 現地調查資料를 通하  
여 整理한 것이다.

되어 있으나 간혹 烈石壇만의 形態를 갖추고 廳山堂으로, 또는 神樹와 祭壇의 複合으로 山神堂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堂>이란 特別한 神廟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形態上으로 祭壇 堂집으로 通用됨을 알 수 있다. 烈石과 神樹 그리고 岩石은 部落의 守護神的 機能을 갖추고 있으며 그 守護神의 住處로 믿고 性格上 Animism과 Theism의 複合 및 移行過程의 表現으로서 民族心理에 根據를 두고 傳承되어 온 古代 部落祭의 발자취임을 엿볼 수 있다.

本稿는 部落祭의 本質과 악에 앞서 部落守護神 信仰의 한 節例로서 그一般的인 形態와는 다른 龜石信仰이라는 特殊한 形態를 지닌 尚州郡 外西面 連峰里 部落과 洛東面 新上里 部落의 골짜기 堂山祭를 살피고자 한다. 따라서 龜石神信仰을 共通으로 하는 兩部落의 概況과 祭儀의 實際를 通하여 龜石信仰의 意義를 밝힘으로써 信仰內容과 信仰對象을 比較 檢討하고 同一한 内容에서 信仰性의 特異點을 發見, 指摘하고자 한다.

## II. <골짜기 堂山祭>의 實際

### 1. 外西面 連峰里의 거북堂山祭

連峰里는 尚州郡 外西面에 속하는 自然部落으로서 陰曆 正月 14일 저녁 이면 거북마의 골짜기 神에게 洞神祭를 모시는 곳이다.

尚州邑에서 西北쪽인 開慶方面으로 10km 가면 東은 沙伐面 南은 內西面 北은 恭儉面에接한 境界地域인 位置에 外西面 連峰里部落이 있다.

外西面의 地形은 南東에서 北西로 긴다랗게 뻗어 尚州郡의 北西쪽에 자리잡은 地勢는 山岳이 連하여 있는 山間地域으로 길이가 約 9km 幅이 約 3.8km로서 平地가 적고 附近에 많은 無名의 山이 散在해 있다. 특히 「連峰里」部落은 山谷지가 連달아 있다고 하여 마을이름을 지어 부른다는 것이다. 이部落의 地形은 北쪽과 西쪽에서부터 東南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沙伐面에 鄰接한 南쪽에는 肥沃한 田畠이 많다. 部落全付가 北西쪽의 크고 작은 山들로 둘러싸여 아득한 深이 있으나 洞里 家屋들이 密集해 있지 않고, 여기 저기 散在되어 있었다. 部落(連峰里 2區) 中央으로 尚州·서울間의 道路 및 慶北線 철도가 並行하여 東部를 橫斷하고 있어 交通이 편리하여 地味가 肥沃하여 農產에 적합하고 特產物로서는 柿 栗인 바 年間 많은 수확을 올리고 있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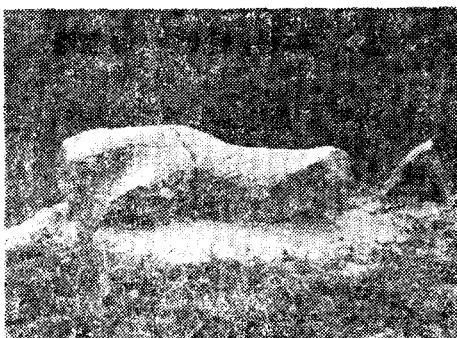
連峰里에 接한 開谷里와 官洞里 사이에는 이 부근의 最高峰인 天馬山

(248m)이 東으로 뻗어 있다. 그 기슭에 連峰里의 單位部落들이 散在하여 있는데 北쪽에 <양지 말>部落(20戶)과 <새풀>部落(26戶)이 있고 東쪽으로 <가는풀>部落(20戶) 南쪽으로 <古支谷>部落(35戶) 및 작은 고지 골部落(9戶)이 있고 西쪽으로는 天馬山 깊숙한 골짜기여서 普通 通行人이 잘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름 지은 無知<무지미>部落(1 戶)등이 있다 그리고 <가는풀>部落에는 옛날 원님이 지나가다가 쉬어간 곳이라는 亭子가 있었는데 마을이름을 따서 連峰亭이라 하였으나 지금은 없고 傳說만 傳할 뿐이다. 連峰里 部落의 姓氏는 모두 26姓이 살고 있는데 이中 순홍 安氏가 33世帶로서 가장 으뜸이며 그의 他姓인 金 朴 李 石氏順으로 살고 있다. 共同組織은 옛부터 傳해온 것은 없고 青年들이 모인 青年會 및 4H 크루이 있고 私組織으로서는 爲親契와 婚姻契가 있다. 그리고 連峰里 部落의 人口數는 約 780名이며(男 430 女 350) 特히 部落의 總戶數는 120戶이고 生業은 主로 農業이 90%이상 차지하고 있는 순수한 農村部落이다.

### (1) 神體 神堂의 形態

連峰里의 神堂形態는 <가죽 나무> 神木과 夫婦神을 象徵하는 작은 岩石과 거북石神이 있는데 部落民들은 <꼴때이 堂山님>이라 불리어지고 있다

部落의 南쪽에는 天馬山의 山麓로서 海拔 60~70m의 無名의 野山들에 둘러싸인 가운데 家屋들이 散在해 있고 마을 앞으로 山에서 내려오는 작은 시내(Creek)가 흐른다. 꼴때이 守



<사진 1> 連峰里 部落의 <꼴때이 堂山님> 거북돌(女神) 前面의 岩石(男神)과 함께 夫婦神格으로 모셔지고 있다.

門將을 모신 神堂은 連峰里二區의 散在部落인 <가는풀>과 <양지 말>의 中央으로 걸설에 있다. 속칭 <가죽나무보통이>라고 불리어지는데 여기서 洞神인 <꼴때이 堂山님>을 모시는 祭場이다. 이곳은 約 20坪 정도의 넓이의 잔디 위에 거의 완전한 거북형상의 岩石神이 있고 그 바로 앞에 삼각형의 뾰족한 小形의 바위가 암·수관계를 이루면서 이 部落의 夫婦神格으로 存在하고 있다. <사진 1 참조> 兩 옆으로 古木의 <미루나무>와 <가죽나무>외에 海松 <느티나무>등이 神木으로 둘러 서 있고 天馬山 山麓에 位置한 이 神堂 뒷면은 野山의 峰으로 앞으로는 마을 入口의 陸路

와 慶北線 鐵道가 가로 놓여 있다. 이 部落의 골백이 守門將 혹은 堂山님은 거북石神을 가르키는데 거북石은 <女神>을 小形의 岩石은 <男神>으로 이루어진 夫婦神格을 말한다. 祭壇石은 따로 없고 거북石神을 모신 부근을 잔디를 입혀 평지보다 약간 20~30cm 정도 높게하여 神體를 모시고 있다. 골백이 神格으로 모셔진 이 거북石은 年代를 추정할 수 없는 上古에 外西面에 鄰接한 <역적동>이라는 산동성이에서 가져온 것으로傳해 오는데 지금의 神體로 모셔진 場所를 <가죽나무모퉁이> 혹은 <거북바위 골백이> 神으로 通하고 있다.

堂神木은 東西便에 서 있어 거북石神을 보호하고 있으며 옛날에는 西쪽으로 약 200m 자리에 生水가 나오는 井이 있었고 앞으로 작은 시내가 지금도 호름을 볼때 連峰里의 거북石神은 水神의 儀要素를 암시해주고 있다 神木과 神體가 있는 神域 즉 <가죽나무 모퉁이>부근엔 田畠과 桑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人家가 없고 農繁期에는 한낮의 휴식처로 午睡을 즐기는 곳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七月十五日 百種日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正月 14일의 洞神祭 날에는 神聖한 聖地가 되는 것이다.

## (2) 祭 日

連峰里部落은 1年中 七月百種日과 正月 14일의 골백이 堂山祭의에는 別 다른 儀式이 없다.

거북石神의 골백이 堂山祭는 陰曆正月 14일 밤에 祭官과 洞民의 代表 몇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풍침(풍물)을 울리고 行祭하게 된다.

이에 앞서 백가지 果日을 차려서 百種行事<sup>1)</sup>를 한다고 하는 七月 15日百種日에는 이 部落의 장년층 및 古老들만이 참석하여 거북石神 주위의 雜草를 제거하고 神木주변을 청결히 한 다음 거북 골백이에 祀회를 뿌려서 雜鬼를 없앤다는 것이다. 百種(百中日) 무렵이 되면 農事일도 끝나고 호미등 농기구를 使用할 일이 없어졌으므로 農夫들이 「호미씻기」라는 歲時風俗<sup>2)</sup>을 들 수 있다. 이때 百中놀이 즐기는 農夫들의 손을 벌려서 하는

(1) 「俗稱百種節 都人盛設饌 登山歌舞爲樂 按孟肅益經 目連比邱 七月十五日 具百味五果 以著盆中 供養十方大德 今所云 百種即百味之謂也」(京都雜志 卷二)  
「十五日 東俗百種日 僧徒設齋佛爲大名節」(東國歲時記)

(2) 尚州地方의 北部地域에서는 아직도 百中節 行事が 盛行되고 있음을 볼수 있다. 百中日을 <호무시한다> <왕태준다>는 날로 부르는데, 이 날은 모든 일꾼(農夫)들이 일손을 멈추고 술내기로 씨름을 하면서 즐기는 날이다. 이 때 地主로 부터 얼마의 돈을 상여금으로 받는데 이것을 <왕태태운다>고라고 한다. 이날은主人과 農夫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각종 놀이로서 즐기는 遊習이 아직도 傳하고 있음을 山間地域의 곳곳에서 찾을수 있다.

作業은 自己의 部落의 祭壇場을 淨化하고자 하는 心情에서 우러났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는 풋果物도 여물어져 가는 時期라 옛부터 神堂에 薦新드리는 百種찬치까지 미루어 생각할 때 1年中 賽은 農閑期로서 正月 祭祀의 中間形態인 秋收感謝節에 比較할 수 있다 하겠다. 이 行事 역시 農耕社會에서만 볼 수 있는 것으로 다가올 秋收期를 대비하여 農作을 祈願하는 一種의 祭祝行事에 속한다고 본다. 아울러 이 行事는 神聖한 祭壇위에 積鬼俗의 하나로 해석될 수 있는데 一般家庭에서는 亡魂日이라 하여 祭를 지내는 遺風<sup>3)</sup>도 傳하고 있다.

### (3) 祭官

祭儀의 절차는 먼저 行祭日에 앞서 4~5日前에 한家庭을 이루는 戶主인 成人男子로서 不淨이 없고 淨한 사람이 마을의 衆意에 依해서 有司와 執事라 불리는 祭官을 각各 1名씩 한다. 그 외에도 洞民 가운데 淨한 사람 數十人을 뽑아 풍감을 올리게 하고 참관하도록 한다. 祭日까지 雜多한 禁忌를 지키며 部落民들은 祭日에 앞서 <가죽나무 모퉁이> <골백이神祭場> 즉 神域에 清淨을 爲해서 청소를 하고 神木과 <골백이 守門將>인 거북石神에게 원쪽으로 끈 새끼의 금계줄을 치고 不淨人과 丈夫이와 外人의 接近을 禁하고 있다. 祭官은 主로 生氣福德하고 年長制를 보고 選出되지만 이 部落은 不淨하지 않고 多幸한 者를 洞民의 協議로 衆意에 依해서 뽑는다. 祭官은 二人의 役割을 祭를 主管하고 燒紙를 올릴 部落民의 姓氏와 內容을 알리고 行하는 任務이다. 그의 참석자는 풍감(풍물)을 치는 사람과 祭를 참관하는 사람 십여명으로 構成員을 이루고 있다.

### (4) 祭費

部落祭와 祭祀에 使用되는 祭器와 祭物의 經費는 洞民들이 공동 부담하여 各戶에서 할당 부담한다. 祭費는 主로 獻納을 원칙으로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洞長이 책임지고 추령하여 마련한다. 洞番에서 나오는 수익과 추령한 獻金으로部落祭를 무사히 마치게 된다.

### (5) 祭物

祭物은 山神祭가一般的으로 肉類를 날것을 使用하고 있듯이 옛날에는 생돼지를 祭堂에서 잡아 쓰지만 요지음은 市場에서 사다 쓰기도 한다. 그 외에는 양초 2자루와 酒 果 脯를 基本祭物로 놓고 祭官의 精誠에 따라 몇 가지 재물들이 첨가되기도 한다. 그리고 祭物 담은 祭器는 해마다 다시

(3) 「國俗以中亡爲亡魂日 盖以閭閻小民 是夜月夕 備蔬果酒飯 招其亡 親之魂也」  
(東國歲時記)

장만한다는 것이다. 祭物 및 祭器 購入時 값의 是非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 (6) 祭 儀

連蜂里部落의 거복石을 主神으로 中心한 <골백이 堂山祭는 매년 正月 14日 晚 10時부터 12時사이에 部落의 入口 절설인 聖域에서 行祭하게 된다. 참석자는 利民의 代表者 數十人과 그 가운데서 祭祀長으로 有司가 있어 祭物을 차려놓고 個人的 除災招福을 祝願하고 部落內의 平安과 安寧을 爲해서 外方雜鬼와 外敵을 막아주는 異界 및 守護神에게 祭를 모신다. 그리고 祀福後 農樂을 즐기는 上古의 傳統의 한 儀式行爲로서 鄉土의 年中行事<sup>4)</sup>이며 우리 民族의 固有民間信仰으로서 禮上外에 지내는 外祀의 하나다<sup>5)</sup>. 그러므로 部落祭는 共同의이고 集團의이고 部落的 形態이므로 祖上崇拜 農耕祭儀 部落守護의 絶對的인 民間信仰<sup>6)</sup>이다.

部落의 守護神인 <골백이 堂山祭>의 祭祀날 해가 西쪽으로 기울면 神木 神體가 있는 神壇에 祭희가 뿌려지고 祭場附近과 神域 주위 및 道路변의 가로수에까지 금줄이 쳐지고 赤土가 뿌려진다. 이날 祭官들은 汽浴 瘡戒를 하고 祭壇앞에 자리를 깔고 有司가 祭主되어 祭儀를 執행할 준비를 한다. 祭物을 차릴 수 있는 神石앞의 잔디깔린 祭壇에는 흰 창호지가 펴지고 有司가 준비한 基本 祭物인 초 1차루 酒果脯가 놓여지는 바 그외는 놓지 않는다고 한다. 옛날엔 肉類를 使用하고 祭物 종류가 많았으나 時代가 흐름에 따라 간소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祭儀는 상차림이 끝난 뒤에 巫式과 儒式의 折衷인듯 農樂인 풍침(풍침굿 = 풍굿)을 울리면 鷄聲前에 골백이 堂山祭가 舉行된다. 풍물(집)은 복, 배구, 징 등 3가지로 치는데 一定한 가락에 맞추어 치는 것이 아니고 祭場의 淨化<sup>7)</sup>와 골백이 장군을 맞이하는 뜻이기도 하다. 이때 部落民들에게 祭의 始作<sup>8)</sup>을 알림으로써 마을 住民들은 祭祀 終了時까지 옷을 벗지 않고 敬虔한 자세를 가지게 된다. 祭祀는 神位의 奉安에서 始作되는데 堂山之

(4) 張籌根 : 韓國神堂形態考 pp. 178~181 「民族文化研究 Vol 1」(高大 民族文化研究所刊 1964)

(5) 祭紀를 크게 나누면 ① 冠婚喪祭의 家祭 ② 鄉人 치성祭, 部落祭, 祈雨祭等의 外祀 ③ 先賢에게 드리는 書院의 草祀等을 들 수 있는데 外祀의 目的是 遠禍招福이 主된다.

(6) 張籌根 : 「金湯智神話와 檳南地方의 民間信仰」 p. 40(文公部刊 文化財 Vol 3. 1967)

(7) 李鍾新 : 「서도部落祭의 考察」 pp. 91~92(文化人類學 Vol 4. 1971. 2)

(8) 金旼蓬 : 「智異山 聖母祠에 就하여」 p. 160(진단학보 Vol 11 1939)

神인 거북골맥이 堂山님에게 獻酌하고 拜禮를 한다. 그리고 讀祝이 있은 후에는 「풀매이」 守門將 洞民平安 家畜繁盛 그 다음 끝으로 個人的 祝願 順으로 燒紙가 올려진다. 個人 燒紙는 成人の 男子에게만 모두 祈願해 주고 있다. 이와같이 祈願의 祭祀가 끝나면 祭官과 참석한 部落民이 飲福을 한다. 이 飲福은 行祭後 祭壇에 진설한 神饌을 먹는 것을 말하는데 部落民이 이것을 먹음으로 心身의 神化로서 災厄을 免하고 福을 얻는다는 뜻에서 음식을 얻어다가 마을에 가지고 와서 집안 식구들에게로 나누어 주기도 한다. 祭와 간단한 飲福이 끝나면 <가죽나무 모퉁이>와 神域에서 祭祀의 終了를 알리는 풍잠이 다시 울리면 部落民들은 謹慎을 해제하고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게 된다. 그리고 祭官과 참석한 部落民들은 祭가 끝난후 都家에 돌아와 酒食을 나누고 마을의 重要한 案件이 있으면 衆意를 모아 討議하고 헤어진다.

#### (7) 禁忌

祭官은 選定된 날로부터 祭祀가 끝날때까지 喪家 및 產家와 他部落에外出을 禁하며 祭祀日을 위해 冷水로 沐浴하여 깨끗한 의복을 갈아입고 心身을 淨化시키며 祭官의 집 주위에는 禁繩이 쳐지고 不淨人の出入을 禁한다. 심지어 禁酒 禁煙 禁肉하고 部落民들은 禁忌期間동안 言爭과 屢殺을 삼가하고 部落의 大清掃를 한다. 또 祭物 準備와 調理는 祭官들이 直接 購入하고 장단하며 祭壇의 진설과정에는 병어리처럼 일체 말을 하지 않으며 祭祀日 일몰후에는 部落民 全體가 謹慎하고 祭祀 끝나는 풍잠이 울릴 때까지 이웃집의外出도 삼가한다.

## 2. 洛東面 新上里의 거북堂山祭

洛東面은 尚州郡 東端에 位置하여 南北이 길고 東北으로 洛東江이 隔하여 義城郡 丹密面과 尚州郡 中東面에 接하고 西南은 甲帳山을 跨하여 尚州邑과 善山郡과 接續하였다.

新上里는 洛東面에 屬하는 自然部落으로서 尚州邑에서 洛東行 Bus를 타고 5km쯤 가면 <성골>고개 중턱에 닿는다. 그곳에서 1.5km쯤 가면 道路 左側에 <中東面>으로 들어가는 標識板이 있고 멀리 洛東江이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標識板이 세워진 右側으로 길을따라 0.5km 들어가면 新上里 部落이 윗新村과 아랫新村으로 이웃하여 村落이 구성되어 있다. 한편 部落의 東北面으로 屏風山(365m) 主峯이 國道 전너 보이고 아울러 그 아래로 洛東江이 正南으로 흐르고 있으며 龍頭形의 野山이 마을을 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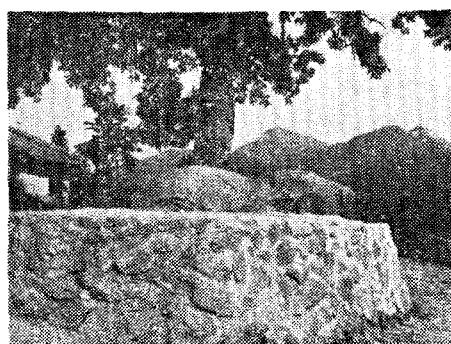
있다. 東北으로 호르는 川邊을 따라 田畠地가 展開되고 있어 이 農士가 곧部落民들의 生活 터전이 되어 주고 있다. 이 部落은 甲帳山(805m) 主峯의 山麓에 位置한 部落으로서 90餘戶의 農家는 大部分 三~四間의 草屋이며 部落民은 모두가 農業에 從事하고 있다.

### (1) 神體 神堂의 形態

部落의 西南方에 位置한 申帳山 主峯을 향하여 1km 름 을 라가면 上神壇이 있고, 下神壇은 部落入口의 洞口 나무(참나무) 아래 거북바위 돌다리가 3個의 바위로 이루어져 완연한 龜形體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 Ⅲ> 참조). 神壇은 上・下 共히 岩石으로 이루어졌는데 上神壇은 1.5坪 정도의 石壇으로 주위에는 茂盛한 樹林이 神堂을 護圍하고 있다. (<사진 Ⅱ> 참조). 上・下 神壇에서 東北方으로 눈을 돌리면 部落全景이 보이며 멀리 國道를 지나 洛東江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 部落의 岩石神은 언제부터인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上神壇은 男神이고 下神壇의 <거북>은 女神이라 하여 夫婦神格으로 모시고 있었다. 每年 全部落民의 安寧과 豊年을 祈願하는 集團部落祭가 거행되고 있는데 3年前 全洞民이 참가하여 萬年祭를 치낸 후부터는 部落祭를 치내지 않고 있다. 上神壇의 거북바위는 참나무아래 三個의 바위로 이루어졌는데 正面에서 보면 돌다리로 구성되었으며 側面에서 보면 完全한 거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部落民들은 <돌다리>, <거북거리>, 혹은 <방구백이>라 하여 부르며



<사진 Ⅱ> 新上里 部落의 上神壇(男神)



<사진 Ⅲ> 新上里 部落의 下神壇(女神)  
3個의 岩石이 한마리의 <거북> 형체를 이룬다.

上神壇에서 男神에게 山神 祭祀를 지낸 후 女神에 대한 거북거릿제를 올린다는 것이다.

### (2) 祭 日

祭日은 每年 元日을 지낸 후 吉日을 받아 舉行한다. 그래서 祭日은 普通 陰曆, 正月 初 2일경에 部落의 古老들이 모여 日辰에 따라 날을 받는데 대체로 陰曆 初六日을 前後하여 擇日하는 境遇가 많다. 따라서 이 部落의 上元祭日은 他部落의 祭日에 비해 若干 特異한 점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一般的으로 尚州地域뿐만 아니라 部落祭의 祭日은 始年祭日이 大部分이기 때문에 正月 14日 祭日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上元祭日이라 생각된다. 여기서 新上里의 上元祭日의 경우 上元은 그 해(年)의 처음 시작이므로 古代人们은 희망에 찬 最大의 吉日로 認識하였을 것이고 月의 呪力에 對하여 無限 神秘와 地上의 明暗을 造作하는 달의 生生力<sup>9)</sup>에 따라 上元日은 그들에게 最大 吉日이라 생각되어진다. 新上里의 部落祭는 每年 1회 祭儀하는 것으로, 上元日에 山神의 下降日을, 日辰에 따라 祭日이 定해진 다음 祭祀時間은 子正을 期하여 밤이 울기 前에 하는 것이 一般인데 先 上神壇 後 下神壇 順으로 하기 때문에 3時間정도 行祭하게 된다. 그리고 行祭에 따른 떤도 行事는 없고 그 악일에는 全洞民이 飲福을 하고 洞契를 한 후 뚩물치기 시작하여 正月 15日까지 行한다.

### (3) 祭 官

祭官의 選定은, 部落民으로 <生氣福德>에 맞는 사람이 祭祀 4~5日前 까지 決定되어 진다. 이때의 祭官은 上·下神壇을 合하여 二人을 選定하게 되는데 그 名稱은 <祭主> <執事>라 부른다. 祭官의 選定은 나이와 生氣를 맞추어 選出하기도 하지만 ① 衰主가 아닌 者 ② 한해(年)동안 어떤 不祥事が 없었던 者 ③ 家內에 嫂娠한 女子가 없는 者 ④ 可及的 家族의 數가 적고 집안이 淨潔한 者, 그리고 祭日에 生氣가 맞는 成人男子로서 諸條件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選定된 祭官은 그날부터 祭日까지 臨時 司祭가 되어 部落의 共同運命을 지니고 神에게 告하여야 한다. 따라서, 祭官은 오직 個人的 利益보다 部落共同의 平安과 幸福만을 爲해 全心全力를 다해 정성들여 神과 接하여야 된다.

### (4) 祭 費

部落祭의 祭祀에 所要되는 經費는 一般的으로 洞畜이나 大同契가 있어 서 마련하지만, 新上里에서는 大同契가 없어 一部 洞畜의 收入과 祭費를

(9) 金烈圭著「韓國民俗과 文學研究」pp. 70~72 (서울, 一潮閣, 1971)

毎年 捻出하고 있다. 祭祀後 乞粒이 시작되어 正月 한달동안 계속 되는데 実家戶戶 訪問하여 家勢에 따라 現物이나 現金을 收納하여 部落의 共同基金도 마련 한다는 것이다.

#### (5) 祭 物

祭祀時에 使用할 祭器는 每年 새 것으로 준비하고 祭物과 함께 市場에서 購入하는가 값의 是非나 品質의 優劣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 祭物은 酒, 果, 脯에 餅, 飯, 그리고 쇠고기를 使用하는데 옛날에는 소(牛)를 잡아서 牲幣로 祭壇에 陳設하였다고 한다. 新上里 部落에서는 옛부터 豚肉을 쓰지 않고 있으나, 他部落에서는 大部分 폐지머리를 使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祭物은 選定된 執事者가 準備하는데 直接 神에게 바칠 餅, 飯의 米는 秋收時 洞窟에서 수확한 稻中 特別히 保管하였다가 쓰여진다. 그리고 祭物 장만할 때는 雜談을 禁하고 祭祀前에 試食해서도 안된다. 祭物은 祭祀 終了後에 部落民들과 함께 끝고루 飲福한다.

#### (6) 祭 儀

祭日이 되면 全部落民은 더욱 극진한 精誠을 들이고 不淨 銀는 者 十餘名을 選定하여 미리 上・下神壇 주변을 清潔히 한 뒤 금줄을 치고 黃土를 퍼그 雜人の 接近을 禁하게 한다. 이러한 作業이 끝나 이튿 밤 구時가 되면 <祭主>와 <執事>가 上神壇에 먼저 도착하여 火木으로 화롯불을 피우고 祭物 陳設에 들어간다. 그리고 祭主는 再拜 獻酌 再拜 讀祝 燒紙 再拜의 順으로 儒祭式으로 行祭하고 있는데 特히, 祭祀의 主要內容은 各種 燒紙를 올리는 일이다. 燒紙는 部落을 위한 <大同燒紙>와 <祭主 執事燒紙> 그리고 戶主 이름을 부르며 하는 戶家燒紙를 올리는데 不淨한 집은 除外한다. 이러한 祭儀는 上神壇에서 下神壇의 골짜이 堂山祭까지 이어지는데 山神祭의 儀式과 유사하며 새벽 3時경 첫 달을 기전에 行祭가 끝나면, 祭主의 집으로 向한다. 그리고 날이 새면 全部落民이 모여 飲福하고 洞會를 開催하여, 部落의 重要案件을 決定한다.

#### (7) 禁 忌

部落祭에 選出된 祭官은 祭期동안 諱慎을 한다. 이期間의 禁忌사항으로는 禁煙, 禁色, 禁酒는 물론이고 魚肉食을 禁하고 不淨한 言動을 하지 말고 遠距離外出을 禁하며 雜人을 面接하지 말고 每日 冷水에 沐浴齋戒를 한다. 그리고 祭主집은 門前에 表識으로 黃土를 깔고, 원새끼줄로 금줄을 늘이고 他人을 禁한다. 또 部落民 역시 洞口에 黃土를 깔며, 금줄을 쳐서 精誠을 들이고 이 期間동안 飲酒歌舞를 안하고 犀生은 禁한다. 이와같이

禁忌事項을 잘 이행함으로써 部落民의 安寧을 유지하고 災殃 없는 한해를 보낼 수 있고 部落民守護神의 加護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III. 神木 鳴티 및 龜石 緣起說話

上代로부터 連峰里部落의 <골백이> 堂山神과 神木인 <가죽나무>에 對한 信仰性과 畏敬은 대단하였다.

筆者가 踏查하였을 때 古老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지금부터 七十여년 전 韓·日合邦直後 日本人 官吏 한 사람이 이 部落안을 지나다가 道路에 빙해가 된다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아름드리 가죽나무를 자르고 난 뒤 2~3일 후 피를 토하고 갑자기 죽었다는 것이다. 가죽나무를 뱀 日本人이 죽은 후 部落民들은 모두 神木을 자르고 損傷을 시켜서 '축' (동티)을 맞아 人命에 害를 끼쳤으므로 그것이 傳하여 지금도 神木 뿐만 아니라 거북石까지 정성스럽게 보호하고 있다는 이야기다<sup>10)</sup>.

連峰里 골백이 장군은 바로 거북石神을 가르킨다. 마을 입구 길섶에 位 置한 거북石神은 部落의 境界神이요 守護神으로서 Animism와 Themism이 혼유한 神의 存在가 內在해 있는 것으로 믿고 이곳 住民들은一般的으로 <골백이>를 通稱<sup>11)</sup>하는 堂樹나무나 고을을 創建한 한始祖神의 姓氏를 부여하지 않는 <골백이水門將> 혹은 <골백이 堂山神>으로 通한다. 이 마을 골백이 石神인 거북바위의 緣起說話는 다음과 같다.

이 마을 입구 길섶의 거북바위는 지금부터 약 2~3백년 前에 連峰里에서 2km 떨어진 <역적동>이라는 산포대기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거북바위를 가지고 올 때 連峰里 住民과 恭儉面의 華銅里 住民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었다. 長生과 瑞祥을 兼하고 招福辟邪의 役을 同時에 맡은 거북을 萬能의 灵物이라 느끼고 <역적동> 말레이(산동성이)에서 이 龜石을 서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투다가 밤중에 華銅里 住民 몰래 장정들이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그때 서로 싸우면서 龜石<sup>12)</sup>를 서로 굴리다가 머리나 다리 부분이 손상 당하여 지금은 거북 품체 단이 남아 형상으로 편별할 뿐이다. 이 龜石을 連峰里 입구 길섶에 옮겨 놓으므로써 그 후 部落平安과 雜鬼를

(10) 連峰里 里長 金仁背(57歲)氏談 (1973. 9)

(11) 張籌根·金宅圭:「洞祭斗 世尊단지」 pp. 99~100 (嶺南大 新羅伽倻文化研究 所刊, 新羅伽倻文化 Vol 1. 1966)

(12) 連峰里 民재식(55歲)談 (1973. 9)

막아주는 部落 守護神으로서 지금까지 龜峰이 守門將으로 傳한다.

이 거북바위는 連峰里 部落의 除災招福을 視願하는 이의 소원을 풀어줄  
으로써 지금도 天馬山 山麓의 幽靜한 空地가 <꼴때이>神의 神域으로 選  
定된 것은 意義 있는 일로 보고 있다.

#### IV. 龜石信仰의 意義

上述한 바와같이 兩部落祭의 <거북堂山祭>로서 祭期 祭祀者 祭物 祭  
儀 其他에 결쳐 비교 要約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그런데 新上里部落의  
경우 致誠形式이 儒祭式임을 엿볼 수 있으며, 連峰里 部落도 上代에는 儒  
祭式으로 祭物을 장만 하던것이 점차 時代의 變心에 따라 經濟的 이유로  
간소한 基本祭物만이 준비하고 있다.

<別表> 連峰里 部落과 新上里 部落의 部落祭 比較

自然 部落名	祭祀名	祭日時	祭官	祭物	祝文	祭祀內容	비고
外西面 連峰里	꼴때이堂山님 (龜石)	正月 14日 밤10~12時	有司一人 執事一人 기타洞民 十餘名	酒 果 腊 양초	有	災禍, 疾 病을 막고 部落의 平 安과 祈 禱	① 푸정굿 한다 ② 百種行事 (7月15日)
洛東面 新上里	①山神祭(岩石) (上神壇) ②꼴때이堂山님 (龜石)(下神壇)	正月六日 선후 밤12~3시	祭主一人 執事一人	酒 果 餅 쇠고기	有	作을 願함	

우리 나라의 部落祭는 元來 巫女로 하여금 堂굿에 依하던 것이 變하여  
儒祭式에 依한 部落祭가 施行<sup>13)</sup>되었다. 現今에도 풍잡(풍물)을 祭祀 前後  
에 올리는 遺習이 殘存形態로 傳해 오는 것을 볼때 上代에 堂굿을 行하던  
部落祭였으리라 본다. 위의 比較表와 같이 兩部落은 龜石을 共히 堂山님으  
로 모시었으며 祭祀內容과 他部落祭와 大同小異한 五穀豐登과 災禍, 疾病等  
을 물리치고 나아가 六畜繁盛하며 家家安樂에 部落의 平安을 新願하는 것  
이다.

兩部落의 部落祭 主神은 <龜石>이다. 이는 原初的으로 山神을 意味하  
는 堂山神格으로, 後世에 來려오면서 龜石을 夫婦神格으로 行祭하였다고  
본다. 新上里의 部落祭에서도 夫婦神格으로 男神을 모시는 山神祭와 女性  
神을 모시는 거북岩石을 가지고 있다. 이 部落에서는 모시는 對象神을 上

(13) 金宅圭著:「同族部落의 生活構造研究」 pp. 236~240 (青丘大學총론부 간행  
1964)

神壇과 下神壇으로 나누는데 下神壇의 洞神祭는 골짜이 守門將으로 龜石을 意味한다. 山神은一般的으로 虎를 聯想하듯이 이 곳 역시 虎를 畏敬하고 있다.

古代의 集團生活에서 虎가 絶對的인 位置의 存在로 認識하게 되는것이 당연한 것은 部落地域이 地理의으로 高山地帶에서 生活을 定着하게 되어 山을 中心으로 한 農經을 主業으로 하기 때문에 動物(虎口)의 피해를 막기 為해 山神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대체로 樹木崇拜思想에서 樹木은 그 自體가 神堂이요 神體로 여가는 Animism의임을 본다. 그래서 岩石信仰과 달리 人格神의 可能性<sup>14)</sup>이 많았지만 上述한 兩部落의 골짜이 堂山祭의 神格인 龜石은 人態神(Anthromorphism) 단계로 進展하여 夫婦神으로서의 人格化를 이루고 있다. 洞神祭는 神木과 神石이 複合된 神域의 神堂形態로서도 特別하지만 또다른 것은一般的으로 堂身木을 <堂樹나무>라 부르는데 여기에 Animism의in 原始的 宗教性이 內在하였으므로 神木보다 거북石에게 <골짜이堂山님><sup>15)</sup>으로 부르기도 한다.

<龜石>을 치칭하는 <골짜이>는 部落의 守門將으로서 部落의 守護神인 同時에 境界神으로서 祭壇의 役任과 信仰을 가지고 있다. 또한 祭儀에 殘存한 <堂樹나무>나 <龜>골짜이等에서도 上古 信仰의 初期形態인 Animism과 Totemism의 殘存文化 遺習을 엿볼 수 있다. 더욱이 <龜石>神은 女姓神으로 原初的 信仰은 山神의 性格<sup>16)</sup>을 發見할 수 있으며, 峰嶺上의 神으로 境界表示 및 聖棲所의 <골짜이堂山님>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上述한 兩部落祭의 對象神인 <龜石>은 山神의 性格이 強하다고 볼 때 連峰里의 경우 主神은 天馬山의 山神인 <거북石>을 意味하며 <골짜이堂山님> 그 自體를 가리키고 있다. 아울러 新上里의 部落祭는 엄격히 山神과 龜石神이 區分된 夫婦神으로 모셔지고 있다.

(14) 張籌根: 韓國神堂形態考 p. 173 (高大 民族文化研究 Vol. 1) 1964

(15) 골짜이는 部落守護神들에 對한一般的인 通常呼稱이며 部落마다 自己골짜이의 固有名詞가 있는것이 原則이어서 <金氏할때>니 <李氏할때>니 하여 姓氏가 붙어 있다고 하지만 尚州地域을 비롯한 本稿에 소개한 兩部落은 特殊하게 <龜石>을 그들의 始祖神으로서, 姓氏가 없이 <골짜이堂山님>이라 부른다. 아울러 尚州郡 北部地域의 山岳地帶를 除外한 洛東江을 끼고 있는 外西, 洛東, 咸昌, 外南, 中東, 沙伐面과 尚州邑等地의 大部分 部落祭의 主神은 <골짜이>神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16) 孫晉泰: 朝鮮古代山神의 性에 就하여 p. 264 (<朝鮮民族文化의 研究> 乙酉文化社 1948刊)

<거북>에 對한 上代人의 思想을 알아보고 <龜石信仰>과의 關係를連結지어 보기로 하자. <龜(거북)>는 元來 神獸로 天과 龍, 地와 馬, 人과 龜의 關係<sup>17)</sup>를 떼고 있어서 人間과 거북이가 어떤 깊은 連關係를 가지고 있다

上代 文獻 가운데 거북과 사람의 關係를 密接하게 들어내주는 事例로는 <金首露王>의 誕生說話에 나오는 龜旨歌, 그리고 海歌詞, 그의 石碑의 龜趺와 住家의 上樑文에 쓰여진 <龜龍>等은 모두 人間과 密接한 關係를 뺏어 주고 있어 龜石神은 天神에 대하여 水神 또는 地神으로 覺想되고 있다. 특히 <周禮>에는 거북이가 葬禮式, 祭祀, 占卜等의 人間事에 관여하고 있다.

上代의 東洋人們은 鶴 龜 鹿을 三大長生動物로 信奉해 왔으며 凤 麟 龍 龜을 瑞祥으로 여기는 四靈思想도 이끌어 왔다. 이 가운데서도 거북만이 長生과 瑞祥을 兼하고 있으며 招福辟邪의 役을 同時에 맡고 있는 萬能의 靈物이라 생각하여 왔다<sup>18)</sup>. ‘虎’가 山神의 使者라면 信仰 거북은 龍王의 使者<sup>19)</sup>로서 龜와 龍은 서로 密接한 關係<sup>20)</sup>를 가지고 있어 우리 옛 祖上들에게 까지 數많은 民間說話와 民間藝術을 낳게 하고 있다.

이와같이 上代人们이 거북을 水神(龍王)의 使者로서 神聖視하였을 때 内陸地域에서는 地神 및 山神의 역할로서 民俗信仰의 對象에서 빠질 수 없는 存在로 보고 그 분류도 다양하게 나누고 있다<sup>21)</sup>. 上述한 兩部落의 경우 龜石은 <글때이 守門將>인 同時に 水神의 要素보다 山神의 것에 가까우므로 夫婦神 가운데 女性神으로서 信仰의 對象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거북이 山神·水神의 역할을 共有했을 때, 곧 龜·龍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 龜는 地上에 나올 때 龍의 使者로서의 역할을 겸한다. 그래서 龜는至尊한 人間創造의 過程을 再生시키는 愛情의 守護神<sup>22)</sup>으로 모시게 된다.

(17) 「天用莫如龍 地用莫如馬 人用莫如龜」(<前漢書> 24. 下 <食貨志>九)

(18) 招福辟邪를 한꺼번에 대표해주는 거북은 古代碑石彫刻의 龜趺로서 傳해 오고 있다. 그외에 祈雨祭用龜石, 龜形礎石, 龜形石函等 珍奇한 彫刻藝術品이 많이 遺存함을 볼 수 있다.

(19) 우리나라 民間傳說 가운데 藥山東臺 거북바위 傳說에 보면 龜가 龍으로 되고 龍이 龜로 되기도 한다. 그리고 <거북이의 報恩>이라고 傳해오는 옛이야기에도 보면 거북自身이 「나는 東海龍王이다.」라고 하면서自身이 龍王의 使者임을 間接的으로 시사해 주고 있다. (任東權 <韓國의 民謡>p. 115. 1972)

(20) 周采赫: 거북신앙과 그 분포 pp. 29~36(韓國民俗學 vol 6 民俗學會刊 1973)

(21) 거북을 神聖視하는 東洋思想은 神龜, 靈龜, 摄龜, 寶龜, 文龜, 篁龜, 山龜, 澤龜, 水龜, 火龜等 大體로 10가지로 나누고 있다.

(22) 金泰坤: <牲器信仰研究> p. 27 (<韓國宗教> vol 1 圖光大學宗教問題研究所刊 1971)

上代人们의 이러한 관념이 곧 古代의 生產信仰과 관련을 가지게 되면서 豊農 豊魚를 비는 祈雨와 神禱에서 볼때<sup>23)</sup> 民間信仰의 의의를 갖게된다.

특히 龜는 地上에 降臨하므로 地上의生生力を 부활시키고 또 “山氣”<sup>24)</sup>를 일깨우는 神通力を 行事할 수 있는 神力を 가지고 있다. 그래서 龜는 生生力 象徵에 依해서 水象徵을 가지는 점<sup>25)</sup>에서 龍과 代替되는 動物인 것이다. 連峰里 部落祭의 演戲의 始原形態<sup>26)</sup>로 寫知할 수 있는 것은 祭儀前後의 풍작(풍악놀이) 즉 주정굿이 行하여 졌고 神에 對한 祈願의 祝文逐災招福을 비는 燒紙 禁菸등은 巫家사이의 連關係를 지적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石神信仰의 主神인 <거북풀액이>는 原初的으로 地神・山神 때로는 水神으로서 堂굿을 행하는 上代의 部落祭의 한 형태로 미루어 볼 때 소구도의 <거북 請拜놀이> 비슷한 民俗祭儀의 옛 자취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거북을 비롯한 動物의 형태를 모방한 石神信仰은 元來 海岸의 靈岩 信仰思想<sup>27)</sup>에서 나왔음을 想起할때 上代社會의 產業構造의 移行<sup>28)</sup>즉 漁撈 採取經濟에서 後代에 내려오면 農耕定着에 따라 山岳信仰으로 神格이 升化되었을 것이다. 이로써 볼때 龜石崇拜 信仰도 儀禮와 結付시키면 上代의 靈岩 信仰思想은 護國信仰에서 部落守護 信仰으로 發展되었을 可能性이 없지 않다고 본다. 古代의 龜石信仰은 上代人们의 祈子를 爲한 致誠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靈岩에게도 祈子대지 祈雨의 信仰意識이 이루어 졌음을 찾아 볼 수 있다.

## V. 結 言

지금까지 上述한 兩部落의 龜石信仰에 對한 調查資料를 例로 들어서 結

(23) J. G. Frazer: The Golden Bough-study in magic and religion p. 179  
(Macmillan London 1967)

(24) 「連龜與海郡 鎮山謬傳作石龜藏于山 背南頭北尾以通 山氣謂之連龜」(世宗實錄 地理誌)

(25) 金烈圭著:「韓國民俗信仰의 生生象徵研究」p. 99 (高大 아세아研究 vol 22. 1966)

(26) 李社鉉著:「韓國假面劇」pp. 51~53 (文公部刊 1969. 2)

(27) 金宅圭:「東海岸의 靈岩 信仰에 對하여」一文武王, 處容, 曺脫解, 首露說話 와의 連關係서一 (全國語文學研究發表 要旨 1970. 5 於大邱曉星女大)

(28) 金哲俊:「新羅上代社會의 Dual organization에 對하여」p. 27~30 (歷史學報 vor 1) 1952

果의 本質을 考察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結論을 下으려 한다.

첫째 神堂의 神位는 <龜石>과 <樹木>이 並合된 守護神<골백이>으로서 마을입구 절점에 位置하고 있는데 連峰里의 경우 祭儀前後의 푸정굿을 行함으로 洞神祭의 二重的인 組織性으로 構成된 民間信仰이다. <龜石>과 <堂木>은 固定祭壇으로서 意義를 가진다. 그것은 龜石信仰의 主神인 <골백이 堂山님>이 守門將의 性格을 지키는데 있다. 아울러 百種日인 陰曆 七月十五日에도 禮鬼俗의 하나인 百種行事를 行함으로 龜石信仰은 Animism에서 Theism으로 變하는 人格神의 傾向의一面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거북>은 海邊이나 江을 따라 主로棲息하므로 三面이 바다인 우리 나라 및 遼東半島와 같은 곳에 龜石信仰이 集中 分布되었음을 볼 때 洛東江이 치나는 江邊에 散在한 龜石도 이전 의미로서 Totem性格과 密接한 地緣性이 있다고 본다.

둘째. 神體의 形態는 <龜石>으로서 <골백이 堂山祭>이다. 이 <거북> 石神信仰은 鐘岩崇拜思想의 殘存形態이며 社會의 役割을 지닌 Totem的 性格을 가짐으로서 祭儀를 通하여 部落單位의 協同과 連帶性을 重視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째. 祭官의 選出方法에서 民主主義의in 共同生活方式과 祭儀過程에서兩部落民의 集團性을 찾을 수 있다.

네째. 東海岸을 中心하여 內陸山間地域에서 볼 수 없다고 하는 <골백이>神을 主神으로 하는 民間信仰이 洛東江을 따라 龜石信仰 및 諸信仰形態로 殘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골백이> 神을 主神으로 모시는 地域의 分布를 보면 東海岸以東北으로 益德, 榮州까지 西로는 安東, 南으로는 東萊地域까지로 散在되어 있다. 이러한 地域들은 모두 上代의 弃韓<sup>29)</sup>辰韓에 각各 屬한다. 尙州地方도 慶北 北部一圓으로서 <골백이>神을 主神으로 하는 民間信仰의 分布闊에 들어감을 立證할 수 있다. 尚州地域도 上代의 辰韓旁으로서 筆者가 踏查한 尚州地域의 現地調查에 依하면 洛東江을 끼고있는 大部分의 部落祭에서 <골백이>神 혹은 <수구백이>神으로 呼稱하고 있음을 본다. <골백이>는 嶺南地方의 東海岸地域에 散在한 洞祭에서 볼 수 있는데 主로 血緣性을 가진 姓氏를 位牌로 모시고 이 祭神을 部落의 創建 및 始祖

(29) 張籌根: 金闕智神話와 嶺南地方의 民間信仰 p.38 (文化財 vol 3 1967 文公部刊)

神으로 <꼴백이> 성황님이라 부르고<sup>30)</sup> 있지만 尚州地域에서는 하나의 姓氏를 지칭하지 않는다. 다만 龜石之神, 土地之神, 혹은 岩石을 對象으로 「秋葉」氏가 말한 <洞防><sup>31)</sup>으로서 <꼴백이 堂山님>이라 通常呼稱으로 사용됨을 본다.

끝으로 本稿는 部落祭를 通한 地域的 諸般文化의 樣相을 調査 考察하여 그 機能的 差異를 比較하고, 하나의 系統을 찾고자 하는데 대한 그 基礎로서 尚州地域의 民間信仰의 한 脈을 짚어보는데 있다.

---

(30) 張籌根:「韓國神堂形態考」p. 174 (高大民族文化研究 vol 1 1964)

(31) 秋葉降:「朝鮮民俗誌」p. 156 (日本 六三書院刊 1954)